

# 샤가(불교축제), 러시아연방 회통시키는 촉매제

### 푸틴 대통령, '음력 설 불교 축제' 주목...축사 보내

### 칼미키야, 부리아트, 투바 ... 법회·연등 띄우기·햇불 순례 등

다민족·다문화의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이 음력 새해에 맞춰 연방 곳곳에서 마련된 불교 축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연방 주요 매체인 타스(TASS) 통신은 크레믈린(Kremlin, 크렘린)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 자료를 인용,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곳곳에서 음력 설을 맞이해 대형 축제를 개최한 불교계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가) 젊은이들의 정신적·애국적 교육과 종교 간 화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불교도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민족 간 평화와 국민 화합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눈길을 잡은 음력 설 불교 축제는 '샤가(Shagaa)'다. 음력 새해를 맞아 마련되는 이 축제는 '백월축제(White Moon

Festival)'라고도 불리는데, 1990년 이후 러시아연방이 음력 설을 공식 휴일(休日)로 지정할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이 축제는 칼미키야(Kalmykia), 부리아트(Buryatia), 투바(Tuva) 등의 러시아연방 남부 지역에서 주로 개최되었는데, "매년 축제 규모와 참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샤가의 주요 프로그램은 음력 새해를 기점으로 연등이나 햇불 등을 밝혀 서원을 다잡고 액막이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타라 모래 만다라'를 재현과 같은 다양한 불거리 등이 마련되기도 한다.

여기에 각 지역에서 존경 받는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봉행하는 대중 법회도 빼놓을 수 없다. 투바 온라인(Tuva-Online)은 올해 백월축제 중 다조(Dorzho) 스님의 법문을 인용, "러시아연방이 티베트 독립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티베트 역사와 문화를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칼미키야 엘리스타(Elista)에 있는 불교사에서 봉행된 올해 음력 설 맞이 법회.



칼미키야 불교계가 백월(White Moon) 축제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연등 날리기' 행사.

투바의 올해 샤가의 하이라이트는 '햇불 순례(The Lighting of Fire)'. 이는 청장년 불교도들이 햇불을 들고 투바의 수도 키질(Kyzyl)의 주산인 도기(Dogee) 산을 오르는 것이다. 투바온라인은 "1킬로미터 남짓한 순례 빛발에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크게 환호했다"고 보도했다.

칼미키야 불교계가 백월축제 프로그램으로 선보

인 '연등 날리기' 행사 역시 새해 희망을 다잡는 동시에 밤하늘에 환하게 밝힌 연등을 띄우 축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칼미키야, 부리아트, 투바를 비롯한 러시아연방에는 300만여 명의 불교도들이 있다"고 전한 러시아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987년

레닌그라드 방문 이후, 1992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부리아트와 칼미키야에서 33명의 행자와 스님에게 사미계와 비구계 수계한 것이 지금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풀이하고, "130여 종의 민족이 함께 살아 가고 있는 러시아연방에서 불교는 서로를 융화시키는 문화적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연방은 서구에서 불교도 2위의 국가이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에는 500여 개의 불교공동체가 있는데, 대부분 칼미키야, 부리아트, 투바 등지에서 흩어져 있는데, 17세기 18세기를 전후해 불교가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부리아트의 경우 몽골의 티베트불교가 17세기에 전해졌고, 재정 러시아 때인 1741년 엘리사베타(Elisaveta Alexeievna) 여제가 부리아트의 불교를 공식 인정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발전했다. 투바의 투르크족에게 티베트불교가 전해진 것은 18세기이다. 처음엔 티베트불교 종파인 겐룩파가 성하다가 현재에는 닝마파로 변장했다. 본래 몽골족인 칼미키야는 몽골에서 독립해 카스피해 유역의 불가강과 돈강 사이로 이주할 때부터 독립한 티베트불교도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우명주 박사의

###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7>



#### 신불교의 문제점과 한계

인도의 신불교는 불가촉천민들을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외인 차별에서 해방시키려는 의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인도에서 신불교가 생겨난 이후 인도 사회, 특히 힌두들이 그들을 완전히 독립적인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불가촉천민들의 개종을 반대해 온 극우힌두정당의 대표인 부처님은 새 종교를 제창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의 고대 사상을 새삼 강조했다 뿐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힌두성전인 바그바드 기타에서 나온 것이고 부처님은 힌두신인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힌두교 신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신불교를 힌두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식시키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가촉천민을 무시하던 시선을 그대로 불교에 투영해 신불교를 전한 불가촉천민들이 믿는 전한 종교로 바라보기도 한다. 또한 불교도라는 것이 곧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 인도의 국립대학에서 불교역사를 가르치는 강사에게 '혹시 불교신자 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나는 브라만이야.' 이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가부가 아닌, 자신의 카스트를 드러내는 그의 대답에서 '우유 카스트인 내가 어떻게 불교도일 수 있겠는가!' 하는 뉘앙스를 읽고 씁쓸했다.

이런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인도의 불가촉천민들이 모두 불교신자인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1951년 180,823명이었던 불교인구가 집단개종이 있는 이후인 1961년에는 3,250,227명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 실시된 인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도의 불교인구는 7,955,207명이다. 이 중 암베드카르의 고향이자 개종식이 열렸던 곳인 마하라슈트라주의 불교신도는 5,838,710명이다. 이것은 인도전체 불교인구의 73%

#### 신불교도들, 종교적 정체성 확립 못해

#### 억압하던 힌두 신분제 해방에만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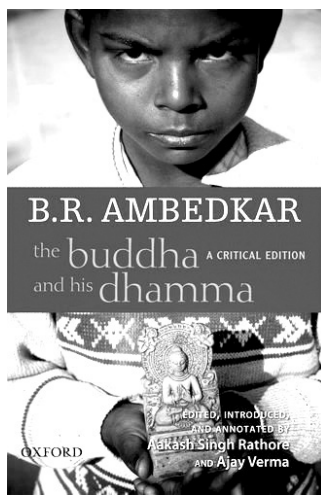
#### 불교기념일·힌두기념일 함께 기려

#### 암베드카르 불교교재에만 의존 문제

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것은 신불교가 전 인도에 걸친 종교세력이 되지 못하고 암베드카르가 속한 카스트와 그의 추종자들 내에서만 호응을 받은 것임을 드러낸다. 암베드카르의 개종호소에 다른 지역의 불가촉천민들은 사실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암베드카르가 개종 이후 2개월만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개종 후에도 많은 신불교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인도의

## 신불교는 불가촉천민이 믿는 종교 '무시'



암베드카르의 저서인 <붓다와 그의 가르침(the Buddha and his dharma)>과 암베드카르



사회학자는 암베드카르의 카스트인 마하르 출신 신불교도들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정에서 붓다와 암베드카르의 사진과 함께 여전한 힌두신들이 집안에 모셔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불교기념일과 함께 힌두기념일을 기리고 있는 신불교도들도 많았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은 불교도이자 힌두교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신불교와 힌두교의 완전한 결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처음 신불교도들은 개종을 할 때는 불자가 되는 것 보다는 힌두교를 떠나는 것이 더 시급했다. 따라서 일부 신불교도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종교를 떠나는 것에 만족했고 새로운 종교에 대한 학습

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이런 현상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불가촉천민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하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배우는데 몰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들과 하위카스트를 위한 할당제가 있다. 이것은 불가촉천민들이나 하위카스트들을 위해 국회에서도 의석의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나 대학에서도 그들을 위한 배정이 있어 일정비율의 신입생을 그들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다. 1990년 이전에는 힌두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헌법상의

하층민 보호조치를 누릴 권한을 상실했다. 이런 사회적 불이익 앞에서 많은 불가촉천민들은 개종을 망설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불교로의 개종이 큰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1990년에 있었던 헌법개정으로 인해 개종 전의 카스트가 불가촉천민에 속하는 카스트일 경우에는 개종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불교단체들을 불가촉천민들에게 불교개종을 호소하면서 이 점을 크게 홍보하고 있다.

신불교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암베드카르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불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할 위험까지 가져왔다는 점이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저술했는데 이는 경전 등을 쉽게 접하기 어렵고 팔리나 산스크리트어를 잘 알지 못하는 신불교도들에게 거의 유일한 불교교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책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이는 신불교도들은 암베드카르가 저술한 내용에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암베드카르의 말은 부처님의 말과 동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암베드카르는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첨가했는데 그 중에는 기존의 불교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또한 많다. 그러나 암베드카르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심지어는 일부 학자들마저도 전통의 불교해석과 다른 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 출강 및 통신

###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⑤ 법사풀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b>모집과정</b>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b>모집학반</b>	· 출강반 · 통신반
<b>입학자격</b>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b>교육기간</b>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b>교육장소</b>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b>기본과정(3개월)</b>	사물(목탁, 요령, 대장,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b>중급과정(3개월)</b>	상주권공, 대명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b>작법반(1년)</b>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b>신행과정(1년)</b>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b>특수작법(1년)</b>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02)733-1959  
720-1836